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90호(통권585호) 포덕 163(2022)년 3월 24일(목요일)
 발행인: 송범두 / 편집인 겸 주간: 박인준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 대회 개최

신임 교령으로 광암(光菴) 박상종 도훈 선출

- 감사원장 부암(富菴) 정덕재 도정 선출, 종무원장 용암(容菴) 주용덕 도훈 인준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신임 교령으로 선출된 박상종 당선자는 교령으로 뽑아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단운영을 교구장 중심제로 전환하고, 현기사를 재정비하여 참신한 수련문화를 창달하며, 대화합의 교단 문화를 창출하고자 대사면을 시행하여 새 출발할 것이며, 임기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일에 진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대의원 대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 중앙대교당에서 재직 대의원 179명 중 16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고 송범두 교령의 대회사에 이어 정희맹 연원회 의장을 임시의장, 임시부의장으로 정갑선 종의원의장, 성장현 연원회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제1안건으로 ‘교헌추대제와 연임가능, 교령사와 현기사는 지방에 둘 수 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헌개정(안)은 부결(찬3:반106)되었다.

제2안건으로 임원선출은 무기명, 무입후보, 비밀투표를 통해 교령과 감사원장을 선출하였다. 교령 등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3년이며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교령 선출은 1차 투표(박상종 56표, 주선원 48표, 김산 29표, 윤석산 14표, 이영노 9표, 이국진 1표, 무효 4표)후, 2차 투표(박상종 85표, 주선원 53표, 김산 14표, 윤석산 5표, 이영노 1표, 이국진 1표, 무효 1표)가 이어졌고, 3차 투표에 앞서 주선원-김산 후보 등이 사퇴하여 박상종 후보를 새로운 교령으로 선출하였다. 박상종 교령 당선자는 주용덕 대의원을 종무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회에서 인준받았다.

이어서 감사원장 선출은 1차 투표(정덕재 83표, 이국진 56표, 방상언 1표, 원경식 1표, 무효 2표) 이후 이국진 후보 등이 사퇴하여 정덕재 후보를 감사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중앙감사, 종의원의원, 유지재단이사, 시천주복지법인이사-감사 등의 선거는 이튿날인 3월 18일 전형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제3 기타 안건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임교령 당선자가 제안한 대로 ‘대화합 정신으로 징계자에 대한 일제 사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형사소송 계류중인 전 재단이사장 손모씨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서 사면할 것을 박수로써 결의하였다. (관련기사 2.3면)



보신 새종계 | 교단 주요 동정

- 3월 5일 - 종학대학원 수료식(11시, 대교당) 입학식(13시, 907호)
- 3월 10일 - 제158주기 대신사 순도일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 11시, 대교당
- 3월 17일 -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10시, 대교당
- 3월 18일 - 포덕 163년 정기연원회의 / 10시, 대교당
- 종교지도자 국정원장 초청 만찬 / 17시, 국정원
- 3월 21일 - 제95주년 해월신사 탄신일 / 재가기도
- 3월 25일 - 제21차 여성회 정기 전국대의원 총회 / 14시, 대교당
- 3월 28일 - 시천주복지재단 이사회 / 15시, 수운회관 13층
- 4월 1일 - 박상종 교령 집행부 업무개시

신임 교령 약력 및 공약사항



광암 박상종 교령 당선자는 현재 남정포 도훈으로, 천도교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 한강교구와 강남교구 창설에 기여하였다. 행정학 박사로서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고, (사)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며 서울시장 표창, 무궁화근장 등을 수상하였다. 박당선자가 교단혁신을 위하여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총부와 교구 균형발전을 위한 '교구 중심제'로 정착화

①권역별 행정대교구장 선정 ②교구장 회의 정례화 ③인근 교구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

2. 현기사 기능 확대→신앙중심체제로 전환

①현기사+연원회: 수도연성의 지도, 교리연구, 포덕·교화 등 연구 개발 ②수련의 활성화: 맞춤형 수련 프로그램개발 올바른 수련문화 정착 ③수도원 지원: 용담수도원과 의창수도원은 항시 개방 ④종학대학원 및 천도교연구소 활용 ⑤설교자 양성_여성유소년지도자, 쉬운 경전, 교리의 현대화 작업

3. 교단 조직 재정비

①조직 최적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극대화 ②기획위원회 활동 재개: 교단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현안과제를 기획 ③감사원 기능 개정: 징벌권→기관장회의 심의의결→교령제가 ④재단 활성화 방안

신임 연원회 의장 약력



호암 이정희 (1945년생)

부안포 도정

교령 역임(2016~2019), 종의원·대전교구장·천도교 교수회장·총무위원·종학대학원장·동학문화진흥회 회장 등 역임.

철학박사(충남대) 공주대·한남대 겸임교수 역임.

신임 총무원장 약력



용암 주용덕 (1960년생)

시원포 도훈

교회경력: 천도교청년회 경상연합회회장, 마산교구 교구장, 종의원 등 역임

사회경력: 창원진학협의회 회장, 경남대학교 자문위원, 마산대학교 자문위원

신임 감사원장 약력



부암 정덕재 (1955년생)

남진포 도정

교회경력: 포덕영우회 심부름꾼, 동학혁명정신선양 사업단장, 중앙감사, 동부산교구 교무부장

사회경력: BNK 등 금융기관 경력 20년, 대원건설산업(주)·세영금속(주) 등 건설업&제조업 임원 20년, 현재 대보식품주식회사(부산어묵)전무

포덕163년 정기연원회의 개최

연원회 의장에 이정희 도정 선출
부의장에 김산 도정, 김성환 도정 선출



3월 18일 오전 10시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포덕 163년 정기연원회의는 모두 51명 중 41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다. 김산 부의장의 사회로 임시의장으로 김영욱 도정을 선출하고 포덕 162년 사업결과보고 후 의장단을 선출하였고, 포덕 16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하였다.

의장 선거는 1차투표(총41표: 이정희22표, 박충남15표, 김영욱4표), 2차투표(총40표: 이정희25표, 박충남15표)후, 박충남 후보의 사퇴로, 이정희 도정을 신임 연원회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부의장 선출에는 1차 투표(김성환 33표, 김산 28표, 박만해 5표, 이윤영 3표, 박충남 2표, 김영욱 1표, 김영환 1표, 명승철 1표, 박차귀 1표, 박창수 1표, 이영노 1표)에서 김성환 도정과 김산 도정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연원회의 포덕 163년 올해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앙 방안 강구: ①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신앙 회복 방안 마련 ②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 수련 및 위생 준수 강화 ③권역별 시일 순회강사 선정 요청 ④연원회 지역별 개인 수련과 교화 지도 ⑤연원회 의장단 지방 순회 ⑥비대면 수련 안내 자료 제작
2. 신앙 체험담집 간행: ①교단의 원로 교역자의 신앙 체험 보존 방안 ②신앙체험담 공모 및 기존 체험담 정리 ③신앙체험 구술 채록 등을 통한 신앙체험담 발간
3. 연원회 활성화: ①코로나19로 대면 모임 감소로 밴드 등 SNS 계정 개설 및 활성화 ②연원회 수련회 참가 강화(코로나19 완화 시) ③연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4. 무연원 교인 문제 해결 노력: ①무연원 교인 해소 ②무연원 교인의 총부 주직 배제 ③총무원과 합동으로 무연원 교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탁암)

중앙감사, 재단이사 등 선출

- 3월 18일, 전형위원회에서



3월 1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운회관 907호에서 전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전형위원회는 관례대로 대회 임시의장단 3인(성강현 도훈은 상례로 불참), 교령 당선자, 감사원장 당선자, 총무원장 인준자, 연원회 의장단 3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전형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총무를 수행할 중앙감사, 종의원의원, 유지재단이사, 시천주복지법인이사를 선출하였다. (각암)

홍암 나인협 선생 선양사업 유공자 표창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지난해 홍암 나인협 선생 전시회 개최와 홍상 제작 등 선양사업에 공헌한 분들께 교령님께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박재범 남구청장(감사패), 원암 유재원 선도사(공로패), 성암 유성재 사회문화부장(공로패), 성강현 연원회 부의장(공로패) 4명이다. (탁암)

제158주기 대신사 순도 추모식 및 순도 선열 합동위령식 개최

3월 10일, 중앙대교당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신사 순도 158주기를 맞아 대신사 순도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이 중앙총부와 각 교구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총부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하여 기념행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였고, 대면방식이 어려운 교구와 교인은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여 재가 봉행하였다.

추모식과 위령식은 전명은 교화관장의 집례로 청수봉전(주영선 여성회총무부장), 경전봉덕(성령출세설, 박차귀 여성회장), 위령문 낭독(박인준 중무원장), 천덕송합창(대신사환원기도가), 추념사(송범두 교령), 천덕송합창(위령송),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분향은 교령, 스승님(대신사, 신사, 성사)가족, 임직원 순으로 이루어졌다. (탁암)

추념사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선천시대의 낡고 그릇된 위정자들에 의해서 참형을 당하신지 158주기가 되는 순도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무극대도가 창명된 이래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위해 순도 순국하신 수많은 선열들의 성령을 함께 위무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오늘 저희 후학들은 합동위령식을 봉행합니다.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대신사께서 경신년에 무극대도를 득도하시어 신유포덕이 시작되자 지배세력은 무극대도를 당시 국금의 대상이었던 서학으로 몰아 무고하고 중상모략 하였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내가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인즉 동학이라”고 하시어 서학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동학이 조선조의 지배이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흑세무민하는 사도(邪道)로 몰아 결국 대신사를 체포하여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는 죄목으로 참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동학의 평등이념이 자신들의 차별화된 기득권 신분사회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좌도(左道)로 몰아 대신사를 참형하였던 것입니다.

동학 천도교가 이처럼 창도 이래 수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를 답습하게 된 것은 대신사님의 말씀 그대로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하고 금불비고불비(今不比古不比)한 무극대도의 진리와 이념에 대한 낡은 사회의 저항으로 나타난 반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선천사회의 몰지각한 위정자들은 대신사와 해월신사를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열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빼앗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무극대도의 횃불은 오히려 더 맹렬하게 번져나가 그들 낡은 세력이 지키고자 했던 구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인여천의 근대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은도시대 46여 년간의 동학의 역정은 실로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동학교문에 대한 가혹한 박해와 수탈로 인해 성(姓)과 이름을 바꾸거나 고향을 등진 채 유리방향을 교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도인들은 공주·삼례의 신원운동에 이어 포덕 34년 2월에는 목숨을 걸고 서울까지 올라가 광화문 앞에 엎드려 스승님의 억울한 누명과 동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으나, 이러한 도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이 무시된 채 동학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포덕 35년에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은 오랜 세월동안 부패한 위정자들의 학정과 횡포를 견디다 못한 동학도인들의 절박한 분노가 도화선이 되어 봉기한 반봉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조정은 일본군과 결탁하여 신식무기로 무차별 학살함으로써 수십만 동학군 선열들은 산과 들을 피로 물들인 채 처절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수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 해월신사를 비롯해서 손천민(孫天民)·강성택(康聖澤)의 순도와, 갑진개화운동, 3·1독립운동, 멸왜기도운동, 광복 후의 남북분열 저지운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순도 순국하셨습니다.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종법수호와 보국안민의 제단 위에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희생을 어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열들께서는 인내천을 꽃피운 지상천국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신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진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께서 그토록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켜온 천도교가 오늘날 침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실로 죄책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희 후학들이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정성과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게으름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道)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기둥을 굳건히 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대신사님의 훈도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불찰을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오늘날 저희 후학들이 불민하여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으나, 삼가 참회 반성함으로써 심기일전하여 스승님과 선열들께서 펼쳐 오신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의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맹세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지구 환경의 재앙적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오니 감응하옵소서.

포덕 163(2022)년 3월 10일

교령 송범두 심고

김개남의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3월 18일, 정읍시 주최 학술대회

정읍시가 주최하고 김개남과 상두산회(대표 김호영)이 주관한 김개남 장군 학술대회가 지난 3월 1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전봉준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을 김개남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료를 통해본 정읍 태인의 동학농민혁명과 김개남 장군’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는 박맹수(원광대 총장)의 「동학농민혁명과 김개남」 기조강연과 김봉곤(원광대)의 「김개남의 태인기포와 태인지역 동학농민혁명」, 이노우에 가후오(일본 홋카이도대)의 「일본군 측 사료로 본 김개남 동학농민군의 항일전쟁」, 이선아(전북대)의 「호남의 동학과 개혁의 꿈」, 최규상(원광대)의 「현지자료를 통해본 태인 동학농민군과 김개남」, 이진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의 「문학작품을 통해본 태인동학농민혁명과 김개남」,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태인 지금실 김개남 고택지의 문화재적 가치」라는 주제가 각각 발표되었다. 토론에는 성주현(천도교), 조재곤(서강대), 김건우(전주대), 조광한(동학문화연구소), 우수영(경북대), 정성미(원광대) 등이 참여하였다. (희암)

《동학농민군명예회복운동 30년사》 발행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지난해 연말 《동학농민군명예회복운동 30년사》(제작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를 펴냈다. 1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30년의 발걸음, 2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기억과 활동, 3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30년의 자료, 제4부 동학농민혁명 30년의 기록 등으로 꾸며졌다.

주영채(주선원) 유족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유족회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며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아내는 당당한 과제가 놓여 있고, 공주 우금티에 추모공원을 조성해 국가가 관리하는 동학농민군 묘역을 만드는 일 또한 뒤따라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김두관 의원, ‘사단법인 전봉준’ 초대 이사장 추대

전봉준 선양사업 활동 등 활발하게 전개키로

사단법인 전봉준은 김두관 의원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지난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성준 공동대표가 추대장을 전달하였다.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김두관 의원은 “녹두 전봉준 장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앞으로 미래세대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 시대정신과 혁명가치관을 주신 분”이라며 “전 회원분들이 추대해주신 만큼, 온성을 다해 전봉준의 가치관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봉준은 지난해 4월 24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서울본부를 제외한 전국 4개 지부(경기, 충남, 충북, 전남)를 두고,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았다. 올해는 4월24일 전봉준 장군 127주기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활동에 들어간다. (희암)

허채봉 동덕, 부경대에서 문학석사학위 취득

‘항일운동으로 본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

허채봉 동덕(부산시교구)는 금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항일운동으로 본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문화학을 전공한 허채봉 동덕은 학위논문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도 면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1919년 식민제국시대에서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범국민 평화 시위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성공시킴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였고, 나아가 동학혁명의 자주정신과 인본중심사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이념인 인간존중과 평등사상의 확립에도 영향을 주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이념으로 이어진 것도 동학과 천도교의 근간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희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본격화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로 역사공원 조성

전북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지난 2019년 7월 연차별 국비지원계획 재협의를 경제성 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재검토 사항 보완을 위해 국비 2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투자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를 재상정했다.

중앙재정심사 통과에 따라 고창군은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2023년 착공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현재 무장기포지의 사적 승격을 위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봉준 생가터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고창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희암)

부여군, 충남지역 최초 3.1운동 기념식

천도교 부여교구에서 첫 만세시위 전개

부여군은 지난 3월 6일 충화면 3·1독립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제17회 충남지역 최초 3·1운동 부여의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매년 3월 6일 부여군민이 한데 모여 만세운동을 재연하고 시가지 행진을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일부를 생략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충남최초독립운동선양위원회(회장 이재성)와 부여군의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선양위원회 회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최초 항일운동의 발원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박성요, 박용화, 최용철, 문재동, 황금채, 황우경, 정판동 7인 애국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용철 애국열사의 손자인 최병현 천도교 부여교구장이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일본인에게 겪는 시달림, 어렵게 지내는 세상사를 묘사한 ‘부여의거 타령’을 식전에 공연해 행사에 의미를 더하였다. 최용철 애국지사는 포덕 48(1907)년 입교하여 부여교구의 전교사, 감사원, 교구장, 고문, 신훈 등 원주직을 역임하였고, 1919년 3월 6일 부여군 충화면에서 천도교인 박용화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임천면사무소, 공립보통학교 등을 돌려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은 언도받았다. (희암)

해월 생태 학교 2기 모집

22.4.9~10.22. (월 2회, 격주 토요일)

탄소발자국 줄이는 꼬마농부 이야기
절기에 따르는 텃밭농사에 참여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생태 활동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봅니다.

일시장소
오전 10:00~12:30 [3교시 활동]
서울시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천수텃밭교육장

활동내용

- 텃밭 활동
- 숲놀이
- 환경 교육
- 생명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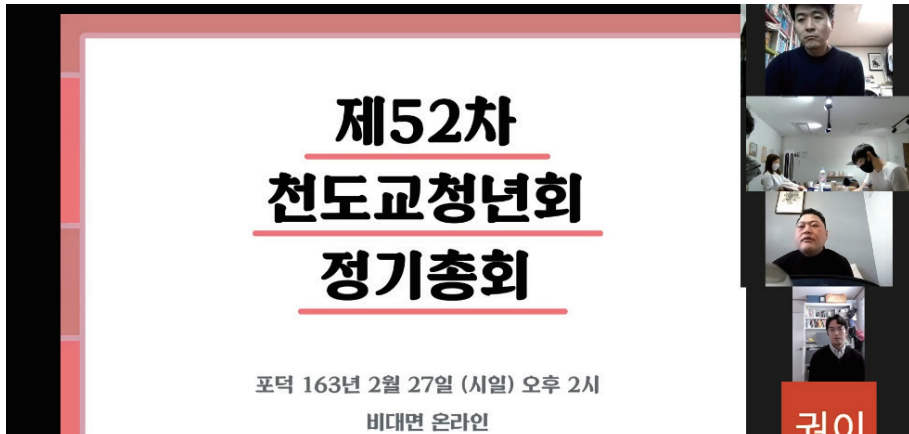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아동·청소년(초등 이상)
선착순 15명

교육비
8개월 5만원

문의처 | 010.6285.6765

천도교청년회 제52차 정기총회 열려

- 이재선 회장 연임, 163년 사업계획 수정 등 논의



2월 27일(시일) 오후 2시 천도교청년회 제52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이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줌(ZOOM) 활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의결권자 25인 중 위임 포함 23인 참석으로 성원되었다.

이재선 회장의 집례로 시작하여 점명, 개회사, 변은수 사무국장의 전차회의록 보고, 김진호 감사의 감사보고, 김나리 위원장의 규약개정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다. 이후 작년 사업과 결산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새 집행부 선출,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 기타 안건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또한 작년에 개사 후 재녹음한 청년회가를 제창하며 의미 있게 마무리하였다.

안건논의를 통해 3~4월 내에 기존 집행부와 새 집행부의 통합 집행위원회의를 거쳐 163년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활동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집행부 선출 결과로 이재선 전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으며, 부회장 김나리, 서만원, 감사 김진호, 류동주,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김권이, 류영은, 박기태, 이주현, 안재규가 선출되었다.

지난 3년간 천도교청년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대면사업들을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 진행해 왔으며 화상회의시스템(ZOOM)을 가장 먼저 활용하였다.

어려운 상황에도 새 집행부를 구성한 청년회는 올해 다가올 어린이날100주년 준비 활동 등에 정성을 기울이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결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회와 대학생단의 조직 재건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여 보다 활발하고 지속가능한 청년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청년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정기총회

손진우 성균관장 제14대 대표회장으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3월 11일 오후 3시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KCRP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 13대 원행 총무원장에 이어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이 제14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은 취임 인사에서 "이웃 종교와 함께 우리 국가가 국내·외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종교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일구어 나갈 것과,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종교계가 손을 맞잡고 나아갈 것,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종교계가 공동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발표하였다.

한편, KCRP는 1986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총회를 계기로 출범, 30여 년 간 한국의 종교간 협력운동을 이끌어 왔고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일구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간 협력 단체이다. 그 동안 KCRP 대표회장은 1대 강원용 목사를 비롯하여 각 종교 수장들이 2년 임기의 대표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총무원)

사설

교헌과 사회법이 충돌할 때

어떤 종단이든 자기네 교인을 보호하고 종단을 유지·수호하려는 의지를 지닌다.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교헌을 제정하고 규정을 만든다. 그런데 간혹 교인을 보호하고 종단을 유지·수호하려는 의지가 개인의 희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그럴 때 피해를 당한 교인은 사회법에 호소함으로써 다툼이 발생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 교인으로서 옳은 태도인 것 같다. 교인이면 누구나 교회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는 교회 기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종교는 그 종교가 속한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우리 천도교는 내포된 정신과 체제 면에서 특성을 지닌다. 그 첫째가 보국안민의 정신이며, 둘째가 중앙대교당을 비롯한 전국의 각 교구 교당에 궁을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게양하는 형식이다. 또 교회의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신사의 존영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궁을기를 부착하는 것은 천도교단과 나라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 나라 안에 존립하는 개인과 공공기관, 종교 단체 등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반면, 한 종교에 속한 교인은 그 종교의 교헌을 지키고 수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천도교인 또한 천도교헌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헌과 헌법 혹은 사회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도교헌과 감사원 규정 등을 보면 사회법과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인이 사회법을

여기거나 중대 범행을 저질러 중문을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천도교헌이 헌법이나 사회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국법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종교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국법 또한 그 종교의 고유한 권한은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종교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종교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는 중의를 모아 국법의 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법은 최종적 수단이다. 국법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천도교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동학의 창도 배경에 동학을 사도로 보아 좌도난정물이라는 명목으로 스승님들을 순도케 한 조정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저항했던 것은 단순히 국법을 부정하고 맞선 것은 아니었다. 부패한 관리를 타도하고 부조리한 제도에 저항한 사회 운동이었으며 종교 혁명이었다.

우리 교단 안에 부설된 각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 상호 관련성, 지배적 권한 여부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정리할 때다. 특히 천도교중앙총부와 천도교연원회, 종의원, 유지재단, 감사원의 관계 설정 및 업무 범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 독립적 권한과 간섭적·견제적 범위, 협의적 의무 등, 서로의 존재이유를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과 교단,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따뜻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천일기념 광고 모집

- 천일기념 특집광고 동참 안내

포덕 163년 천일기념 광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 교구·개인 광고 30만원
- ▶ 기업광고 50 ~ 100만원 ※ 표지, 안표지 광고는 100만원 이상
- ▶ 개인 줄광고 10만원 (예. 홍길동- 서울교구 : 축하합니다. 등) 4월호에 실릴 광고는 4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후에 모집되는 광고는 다음 달에 게재합니다.

■ 광고 접수_ 카톡·문자 / 전화 / 이메일

010- 2787-5058 / 02) 735-3296 / 1926nh@daum.net

포덕 163년 천도교종학대학원 수료식

- 3월 5일 서울본원, 3월 12일 부산분원



천도교종학대학원(원장 임형진)은 3월 5일(토) 오전 11시 중앙대교당에서 신암 송범두 교령, 임형진 원장, 주선원 교수, 정무영 동문회장 등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정규 3, 34기 수료식을 봉행하였다. 부산 분원은 12일 오후 2시 대동교구 성화실에서 별도로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김혜영(영등포교구) 강대기(당산교구) 신혜원(동서울교구) 윤은경(수원교구) 이문상(한강교구) 임남희(대남교구) 하영자(사천교구) 김흥기(광주교구) 이상원(대동교구) 정의수(부산시교구) (종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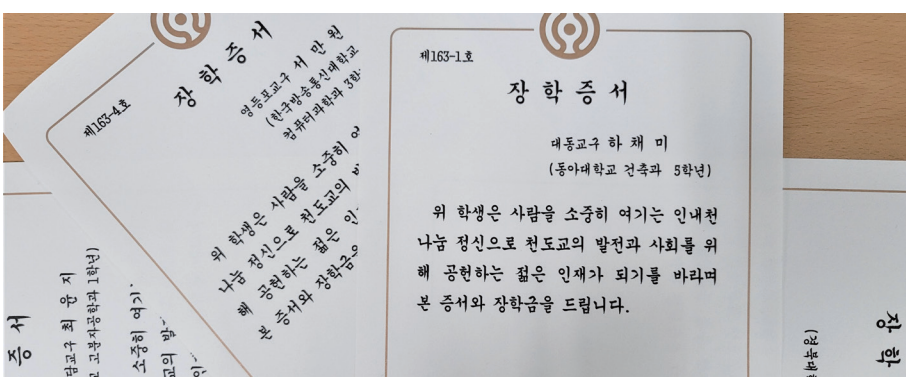
천도교청년회 온라인 수련회 개최

- 교리, 교사 등을 주제로 매일 시행

천도교청년회(회장 이재선)는 포덕 163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문공부와 함께 교리와 교사를 익히는 이치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월부터 교리, 교사, 수행, 문화 등을 주제로 공부 시간을 갖고 있다.

3월 온라인 수련회는 3·1절을 맞아 3월 6일 저녁 7시 “3·1혁명과 천도교청년회”라는 주제로 희암 성주현 상주선도사와 함께 이치공부를 하였다. (천도교청년회)

포덕 163년도 인내천 나눔회 장학금 선정



인내천 나눔회(대표 방태수)는 포덕 163년도 장학금을 선정하였다. 장학금 선발은 신청서 및 추천서를 통해 인내천 나눔 정신을 실천할 대학생으로 4명을 선정(심사위원: 김춘성 최상은 서종환)하였으며,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하채미(대동교구) 동아대학교 건축과 5학년 ▷심규원(진주교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4학년 ▷최윤지(용담교구)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학년 ▷서만원(영등포교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3학년 (장학금 각 100만원)

인내천 나눔회는 포덕 157년 7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어 매년 ‘인내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방태수 대표는 “그 동안 전국에서 정성을 보내주신 회원님과 관심을 가져주신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글:사진/방태수)

.....
포덕 162년도 인내천 나눔회원 및 회비 내역
방태수 360,000 라명재 1,200,000 주선원 90,000 김성수 360,000 이홍자 240,000 라일선 120,000 석현민 360,000 서민중 240,000 방임현 120,000 박정연 360,000 김순자 240,000 김춘성 120,000 김산 360,000 김민경 180,000 이상건 120,000 서종환 360,000 박충구 240,000 구옥주 120,000 최상은 360,000 김춘옥 120,000 박경희 90,000 조용순 360,000 서경원 120,000 서해원 120,000 정경숙 240,000 대학생단후원회 1,000,000
총 7,600,000원
회원의 회비는 오직 장학금으로만 사용됩니다.
회비계좌 농협 352-0931-7940-23 방태수(인내천나눔)
총무 서종환 010-2713-3601
.....

4명의 어린이, 방정환한울어린이집 졸업

- 제7회 졸업식, 2월 25일 경주



지난 2월 25일 경주 방정환한울어린이집(원장 임우남) 제7회 졸업식이 열렸다. 재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축하 속에서 모두 4명의 어린이가 졸업을 하였다. 방정환한울어린이집의 원생은 모두 30명이며, 고운당 임우남 동덕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방정환한울어린이집)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종교환경회의 기도회 열려

- 한울연대 참가, 3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성명서 발표



천도교한울연대(상임대표 이미애) 등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양재성)는 3월 11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거짓을 넘어 진실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기도회는 청수봉전에 이어 양재성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종단별 기도회와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지 1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강조하고,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으며, 영광 한빛 핵발전소의 문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문제 등을 한수원은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알리지 않았다”고, “여전히 해답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종교환경회의는 “하늘과 땅, 사람 모두가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와 순례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천도교한울연대)

삼천포교구 정기회의 개최

- 2월 27일, 최외수 교구장 연임

삼천포교구(교구장 최외수)는 2월27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포덕162년 결산보고(교구,여성회)를 심의 통과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교구장 전담 최외수(연임), 교화부장 옥암 장순욱(연임), 교무부장 입암 장순명(연임), 경리부장 자암 김대균(연임), 감사장 경암 최희수 감사 천암 장순포, 운암 최도수(신규). 여성회장 숙성당 박송학(연임) 부회장 명지당 박윤자(연임) 총무 혜원당 최남순(신규) 감사 봉신당 박돌덕(연임) (삼천포교구)

〈환원 소식〉

봉암 류정기 선도사 3월 14일 환원(부산시교구, 성강현 연원회부회장 장인)

빈소: 부산 착한전문장례식장 (안락동) 3층, VIP 2호실

영결식: 3월 17(목) 21시 | 발인: 3월 18(금) 오전 5시 30분 | 장지: 남해 설천면 선영

부산시교구 제16대 교구장 및 임원 봉고식 봉행

- 3월 6일, 박차귀 교구장 취임



부산시교구에서는 3월 6일 첫 시일을 맞아 시일식 후 교구장 이·취임식을 봉행 하였고, 이후 집행부 임원들은 별도로 인장 수여와 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집하는 봉고식을 봉행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교구장 박차귀, 감사장 박기섭, 감사 공진성·하복숙, 순회교사 전춘자·류미순·박정례·박수연·박덕순, 교화부장 손운자, 차장 강정옥·고봉섭, 교무부장 박옥실, 차장 류미순·서정대, 경리부장 정해진, 차장 박종자, 합창단 단장 류미란, 청년회장 류동주, 어린이주임교사 조희경, 여성회회장 강선순, 감사 전춘자·손운자, 부회장 문춘옥·곽정숙, 교화부장 강민엽, 포덕부장 박정일, 총무부장 박옥자, 재무부장 박시애, 조직부장 김정은, 사업부장 양숙자 (부산시교구)

선구교구 교구장 이취임식 및 주직 임명장 수여

- 3월 6일, 박철 교구장 취임



천도교 순의포 선구교구는 3월 6일 시일식 후 선구 교구장 이취임식 및 주직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박철 신임 교구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수도하는 교구로서 면모를 일신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엔 새로 선임된 주직은 교화부장 법신당 이영미, 교무부장 옥암 김운옥, 경리부장 행복당 임정주, 여성회지부회장 순화당 김미순, 감사장 성암 박범천, 감사 원암 김재원 동덕 등이다. (선구교구)



『신인간』 합본제책 안내

독자 편의를 위하여 『신인간』을 양장본으로 합본제책하여 드립니다.

- 합본년도: 포덕 160-163년
- 합본제책비: 74,000원(1년치 『신인간』책값 + 합본제작비)
- 합본제작비: 30,000원(본인이 『신인간』 1년분을 가져올 경우)
※ 결본은 권당 4,000원 추가부담
- 신청마감: 포덕 163년 12월 30일(신청마감 후 일괄제작)
- 신청문의: 신인간사 T 010-2787-5058 / 02-735-3296

진주시교구 교구 임원 임명자 수여

- 3월 6일, 정의적 교구장 유임



진주시교구는 3월 6일 시일식 후 교구 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교구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교구장 정의적(유임) 감사 박완주(유임) 교화부장 장홍숙(신임) 교무부장 정진숙(신임) 경리부장 서경옥(신임) (진주시교구)

천도교여성회, 3.8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여

- 3월 6일, 박철 교구장 취임



천도교여성회(회장 박차귀)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회장 허명)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 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였다. 여협이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 참여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양성평등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며, 성별 갈등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모을 것을 결의” 하고,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 ▶성별임금격차 개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양성평등교육 전담 부서 설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확산 ▶디지털성범죄 근절 총괄 기구설치 ▶고령친화지역 조성 ▶난임지원 사업 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여협에는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고,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가 참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신인간 1926. 4. 1. 창간
제96주년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천도교한울연대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해답은 삼경(敬天·敬人·敬物)!! 한울과 사람과 만물 공경!!!

삼경정신 널리 펼쳐 기후위기 극복하자

하늘을 모시고 사람을 섬기고 만물을 공경하는

천도교한울연대

천도교종학대학원 포덕 163년도 1학기 신입생 추가모집

정규 및 통신과정

- 모집인원 00 명
 모집지역 서울본원(수운회관 307호) / 부산분원(부산 대동교구)
 수업연한 2년(4학기)
 지원자격 1) 종학대학원을 이수하지 못한 교역자
 2) 종학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천도교인
 3) 종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받고자 원하는 자로서
 각 교구장의 추천이나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수학 능력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일반인
- 등록금 매 학기 20만원(입학금 10만원)
 교육방법 출석수업 및 원격학습
 정규과정 : 토요일(13:00 - 18:00) 수요일(19:00 - 21:00)
 (부산분원은 별도 과정으로 운영)
- 학사 일정 2022년 3월 5일(토) - 6월 11일(토) / 15주
 장소 수운회관 307호(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서류 입학원서, 학업 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추천서 각 1부
 사진 2매(3x4명함판)
 제출방법 종학대학원 교무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응시원서 : 홈페이지 www.chondogyo.or.kr 참조
- 서류접수기간 포덕 163년 3월 1일(화) - 포덕 163년 3월 31일(목)
 합격자 발표 개별 이메일 통보
 등록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443-137754-13-001 (예금주)천도교중앙총부
 문의 02)720-3020

천도교종학대학원

